# 美 비관세 장벽 철폐·차 수입 개방…국내 픽업트럭 '긴장'

## 트럼프 '車 시장 개방' 후속 조치 주목…검사·인증 절차 등 변수
## 국내 픽업 시장 선도 기아 타스만 등 시장 판도 변화 예의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완전개방'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아 타스만 출시를 계기로 모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차 가세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1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자동차 업계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일단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차 시장이 활발히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17.5%에 달해 유럽(72.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25.7%로 미국산 수입차 시장 비중이 2.8%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개방보다는 규제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하며 기술적·환경적 기준이 미국산 차량 수입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부처별 중복 규제, 원산지에 따른 인증 기준 상이, 미국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등이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암참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국토교통부), 에너지 효율 등급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인증·보조금 평가(환경부) 등을 언급하며 "규제들이 사전 조율 없이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주도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제조사 자체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을 입증하는 자기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간 차이도 크다.

또 이번 협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산 대형 픽업트럭 수입 확대 가능성이다. 픽업트럭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SUV와 함께 70%에 달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차급이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은 경쟁력 있는 픽업트럭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그간 좁은 도로 환경과 온실가스 규제 등을 이유로 진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차박' 문화 확산과 아웃도어·레저 트렌드 급부상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픽업트럭 수요가 늘고 있다. 기아 '타스만', KGM '렉스턴 스포츠' 등 국산 브랜드의 픽업트럭 출시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자국 브랜드의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노릴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오히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로 규제가 완화되고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면 우리나라의 신차가 더 유리한 경쟁 구도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산 차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산 브랜드가 새롭게 개척 중인 픽업트럭 시장의 기반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협상 결과와 국내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타스만.

# 현대차,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힘 보탠다

##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
## 유해봉환식 의전차량 지원 등

현대자동차그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 유해봉환식 의전 차량 지원, 국립현충원 셔틀버스 기증 등으로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먼저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사료 전산화에 나선다.

독립유공자 포상·검증 업무에 중요한 독립운동 사료 대부분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화가 된다면 보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OCR 기술은 이미지를 스캔해 글자 정보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모델이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정비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계기판, 차량 등록증을 촬영해 차량 정보를 추출하는 등 OCR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한글·영어 필기체 정보 인식에 특화된 OCR 모델로 독립운동 사료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유해봉환식에 필요한 유해 운구 차량과 유가족 이동에 필요한 의전 차량을 제네시스 G90 등으로 지원하고 이후 유해봉환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셔틀버스로 활용할 친환경 전기버스를 각 1대씩 기증해 현충원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훈 활동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금호 SLM팀 '인제 나이트레이스' 1위

## 금호타이어 기술력 입증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팀(금호 SLM팀·가운데)이 슈퍼레이스 5라운드 '인제 나이트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5라운드에서 금호 SLM팀 소속 이창욱 선수가 기록 1시간 7분 53초 251(40랩)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이창욱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경기 초반 전략적으로 피트 레인으로 들어가 후방 타이어 교체, 연료 보급 등을 하는 '피트스탑'을 통해 20랩부터 선두에 섰다.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SLM팀의 팀워크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남은 경기 동안 더 좋은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직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슈퍼레이스 6라운드는 9월 7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주간 경기로 열릴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현대 제네시스, 이집트 달린다

## 아프리카 시장 본격 진출…이집트 첫 상설 전시장 개관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이집트에 공식 진출하며 중동·아프리카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제네시스는 지난 7일 (현지시간) 현지 파트너사 GB오토와 함께 이집트 진출을 선언하고 수도 카이로 인근 뉴카이로 디스트릭트 5에 첫 상설 전시장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총 895㎡ 규모의 전시장은 제네시스가 아프리카 대륙에 구축한 최초의 판매 거점으로, 중동에서 아프리카 본토로의 사업 확장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팝업 쇼룸을 운영한 데 이어 이집트를 고급 전기차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시장에는 GV60, G80, GV70 부분 변경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으며 내년까지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차량은 별도 주문을 통해 사전 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현지 고객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5년 무상 보증·정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받아 정비 후 다시 인도하는 '도어 투 도어' 정비, 24시간 긴급 출동, 호텔·여행 등에서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 고급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제네시스는 공식 진출 전부터 현지 한국·이집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특판을 진행하며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중동 시장에서는 2020년 1078대, 2021년 2824대를 판매에 이어 2022년 아중동법인(GMEA) 설립 후 4602대, 2023년 6700대, 지난해 8000대로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었다. 이로써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 |
|---|---|---|---|---|---|---|---|---|---|
| 용산지점 | 062)526-0222~3 | 유동지점 | 062)512-1984~5 | 유덕지점 |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 062)531-7745~6 |
| 치평지점 | 062)381-8212~3 | 동림지점 | 062)513-8521~3 | 동운지점 |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 062)364-8400 |
| 쌍촌지점 | 062)381-6551~2 | 운암지점 | 062)527-3295~6 | 버들지점 |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 062)373-3235 |
| 화정지점 | 062)372-0421~3 | 운천지점 |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